

고용시장 '춘래불사춘'

〈春來不似春·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

코로나에 꽂 달린 취업문...신입 공고 광주 28.2%·전남 26.9% ↓ 사람인 조사, 3월 전남 경력직 32.7% ↓ 17개 시·도 가운데 1위 기약없는 기관 공채에 더 얼어붙은 고용시장...5월 채용도 불투명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취업시장 문이 닫혀 지난 달 채용공고가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200여 명을 뽑을 계획이었던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상반기 공채도 기약없는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다. 13일 취업정보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공고 등록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해 광주 -28.2%·전남 -26.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력사원 채용 감소폭은 더 컸다. 전남 지역 3월 경력 채용 공고건수는 지난해보다 -32.7% 줄어들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광주 경력 사원 채용 공고는 -8.9% 감소했다. 사람인 관계자는 "올해 1월 채용공고는 지난해와 비교해 두 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에는 감소폭이 커졌다"며 "이는 코로나19 여파인 이른바 'C쇼크'로 인한 채용 절벽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월 채용 공고를 업종별로 나눠보면 서비스업 채용은 지난해보다 -49.8%나 감소했다. 감소폭이 큰 업종으로 ▲교육업 -37.3% ▲은행·금융업 -35.2% ▲미디어·디자인 -35.2% ▲판매·유통 -33.4% ▲의료·제약·복지 -32.9% ▲제조·화학 -

25.1% 등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임금근로자 취업자 수는 광주 58만4000명·전남 59만4000명으로, 올 3월 고용 감소폭은 오는 17일 발표하는 고용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채용 계획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들 기관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전국 340개 기관에 전달한 '코로나19 상황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에 따라 올해 예정된 채용 규모 2281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3월 예정됐던 원서접수부터 서류전형·필기시험·직무면접·종합면접 등 적어도 4개월이 걸리는 채용절차가 언제까지 연기되는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전력 관계자는 "오는 5월 중에 채용전형을 시작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태"라며 "신원확인 문제로 필기시험은 오프라인 시행을 고수

해야 할 것 같다. 한전 취업지망생들의 문의가 잇따르지만 별다른 답변을 줄 수 없어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13일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이달 말까지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여성적을 온라인 사전 접수할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취업준비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까지 유효기간이 남은 영여성적을 보유 중인 취업생은 지원 예정 공공기관에 성적을 채용공고 이전에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1~4월 유효기간이 만료된 토익이나 텡스 성적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을 포함한 혁신도시 주요 기관들은 상반기 채용을 5~6월로 잠정 연기하고, 일부 필기시험은 무기한 미뤘다. 한전이 지난 달 27일 공고한 채용 연기 안내는 2주일여 만에 조회 수 1만1000회를 넘겼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825.76 (-34.94) ↑ 금리(국고채 3년) 0.996 (+0.026)
- ↓ 코스닥 596.71 (-14.55) ↑ 환율(USD) 1217.90 (+9.10)

신보 대출비율 30%대...속타는 소상공인

실행률 광주 11위·전남 8위

■ 지역신보 대출실행 비율

(10일 기준·대출실행비율·단위:%)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비율이 전체 신청 건수의 3분의 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현황에 따르면 10일 기준 대출실행 비율은 광주 31.2%·전남 38.2%로 집계됐다.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는 11번째, 전남은 8번째를 차지했다.

대출실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61.3%)였고 울산(59.6%), 대전(45.4%), 강원(40.9%), 충북(40.7%), 부산(39.3%), 인천(38.7%)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실행 비율은 33.7%이며 대구(26.9%), 서울·경남(각 27.3%), 경북(27.8%)은 하위권에 들었다.

한편 신청 대비 보증서를 발행한 비율은 전남이 66.2%로 전국 3번째로 높았다. 광주는 47.9%로 11번째를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48.0%)을 밑돌았다.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보증서 발행 비율이 85.3%로 가장 높았다.

16개 지역신보는 이날까지 보증신청

순위	지역	비율(%)
1	제주	61.3(69.8)
2	울산	59.6(85.3)
3	대전	45.4(64.4)
4	강원	40.9(55.7)
5	충북	40.7(60.6)
6	부산	39.3(46.7)
7	인천	38.7(50.7)
8	전남	38.2(66.2)
9	경기	36.7(49.5)
10	전북	34.9(44.0)
11	광주	31.2(47.9)
12	충남	30.4(48.0)
13	경북	27.8(58.1)
14	경남	27.3(33.7)
15	서울	27.3(36.7)
16	대구	26.9(42.8)
	평균	33.7(48.0)

53만1202건을 접수했으며 이중 보증서 25만4844건(48.0%)을 발급했고 17만9120건(33.7%)의 대출을 실행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기부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 모집

최대 100억원 특별보증 지원

(R&D)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인 '유니콘' 육성을 목표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기업들을 선정해 특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 자격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누적 투자유치 실적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14일부터 5월 11일까지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과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특별보증'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도입된 스케일업(기업의 폭발적 성장)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됐다. 상반기 중 15개사 내외를 선발해 최대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유망 스타트업 40곳을 예비 유니콘으로 키워내는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평가 마지막 단계에서 전문평가단과 국민 심사단의 공동 심사를 거친다.

선정 기업에는 시장 개척비용 3억원이 지원되며, 특례보증과 정책융자, 연구개발

신청 및 추천은 K유니콘과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모

▲기획장작스튜디오 파일럿콘텐츠 제작(예산 7억원·마감·5월7일) ▲CG활용프로젝트 제작(11억8000만원·5월7일) ▲체험형 융합콘텐츠 제작(4억8000만원·5월21일) 등이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올해 23억여 원 규모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2020년도 문화콘텐츠 분야 제작지원사업' 3개 부문 참여기업을 오는 5월까지 각 기한에 맞춰 공개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탁용석 원장은 "문화콘텐츠 분야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우리지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 내 우수사업 확대와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광주시가 함께 추진한다.



대파 농가 '힘내세요'

13일 롯데마트 광주윌드컵점 직원이 '1+1' 특판용 신안 대파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전남 9곳을 포함한 전국 125개 롯데마트는 오는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신안 대파 100t과 친환경 학교급식 대파 10t을 '대파 농가 돕기 특판'에 내놓고 1단(1980원)을 사면 1단을 덤으로 준다. <롯데마트 제공>

할인 받고 지역경제도 살리고...지역사랑상품권 인기

3월 발행·환전액 역대 최대치 광주 353억·전남 415억 판매

교하면 지난 달 판매액은 부산이 14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 1883억 ▲경기 1239억 ▲전북 547억 ▲전남 415억 ▲경남 356억 ▲광주 353억 ▲경북 261억 ▲충남 245억 ▲강원 161억 ▲충북 153억 ▲울산 121억 ▲세종 64억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으며 3월 판매액은 356억원을 기록했다.

전남지역 지난 달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이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5번째를 차지했다.

구매 등을 통해 환전된 지역사랑상품권은 3월에 6118억원으로 역시 월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월평균 환전액 2513억원의 2.4배 이상이다. 올해 1월 환전액은 4110억원, 2월에는 4105억원이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늘리면서 지난 달 발행액과 환전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살권을 살리기 위해 당초 3조원으로 계획했던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6조원으로 늘렸다. 또 추가경정예산으로 발행비용 24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판매 시 할인율도 5% 안팎에서 10%로 올리면서 상품권 판매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해 3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금액은 총 72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비로 지자체에 발행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한 달 기준으로 최대 판매액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월평균 판매액은 2651억원으로, 올 3월 판매액은 2.7배(171.9%)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5266억원, 2월 4124억원이 판매됐다. 국비 지원을 받은 13개 시·도별로 비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